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공영일
주간 최상진
편집장 한승오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제1108호 〈주간〉 1996년 12월 9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년 5월 12일 창간) ISSN 1228-0054 【1】

재단 조정원 교수 차기 총장 지명

11, 12일 전체교수회의 신임투표로 확정

서울캠퍼스 조정원 부총장(정외과 교수)이 공영일 총장 후임 차기 총장으로 지명됐다. 고황재단(이사장 최태섭 한국유리명예회장)은 지난 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기 총장을 지명, 조정원 부총장과 교수협의회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교수협의회는 각 단과대 교수 대표들로 구성된 교수평의회를 소집, 교수협의회 회칙 제3장 8조 3항〈총장선임에 관한건-총장 선임에 심의, 건의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차기총장 후보 선임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번 신임투표는 교수평의회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1일 오후 4시~6시 서울캠퍼스 도서관 시청각실, 12일 오전 9시 오후1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은 12일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신임해야 조부총장은 차기 총장으로 확정된다.

한편 조정원 부총장은 지난 4일과 6일 노조와 교협대표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오늘은 서울 신·구학생회와 모임을 갖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부총장의 총장 지명에 대해 김종원노조위원장은 "선출과정에 직원,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안돼 아쉽다. 이번 총장선출이 경희대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9대 총학생회장 박정윤군은 "신임 총장은 개교50주년과 내년의 학부제실시, 교육시장 개방 등 학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에 재임한다. 이에 우리학교 발전방향을 세울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영준 기자〉

전과 전형내용 및 일정 확정

교무처는 97학년도 전과 전형내용 및 일정을 확정했다.

97학년도 2·3학년에 한해 시행되는 이번 전과는 학과(계열,학부)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용하고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의·약학 계열로, 다른 캠퍼스로,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는 학과(계열, 학부)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편입학자, 재입학자 특기자의 학년 인하전과는 불허한다.

지원자격은 2학년의 경우 1학년 과정 이수자로 35학점 이상(의·약학계 : 3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하며 3학년은 2학년 과정 이수자로 70학점 이상(의·약학계 : 7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한다.

전과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과신청서(소정양식) 1부, 성적증명서 1부이며, 사범대학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전출학과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원서대 및 전형료는 각각 1천원, 2만원이며 예·체능계 전형료는 3만 5천원이다.

평균평점에 의한 성적 순위에 따라 전형하며 사범대의 교직 인,적성 검사나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합격 불합격 자료로만 사용한다.

구분	시행일시	장소	비고
원서교부및 접수	96.12.16(월) -12.17(화) 09:00-17:00	교무처학적과	
면접고사 및 교직인·적성검사 예·체능계 실기고사	97.1.8(수) -9(목)	고사장소는 원서접수시 안내	결시자는 불합격처리함
합격자발표	97.1.14일 이전	소속대학 교무실통보및 공고	

권기헌교수 '학술상' 수상

법대 권기헌(행정)교수가 ;96년도 '한국행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5일 외대 대학원에서 'Declining Role of Western Power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Exploring a New Model of U.N. Burden Shar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행정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이번 상은 지난 3년간 국내 행정학회지 및 외국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하게 된 학술상이다.

권교수의 논문은 영국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출간한 Journal of Public Policy 제15권 1호에 수록되어 있으며, 우리학교 대학원보 지난 4월 2일자에도 요약본이 게재된 바 있다.

사 령

任 수습기자 : 홍유리(국문 1) 강남이(문리대 물리 1) 강재은(생물 1) 김동혁(생물야 1) 최현일(생물야 1) 최용섭(경영학부 1) 오경란(미교 1) 김용운(유전 1) 최진원(전자전파 1)

-이상 12월9일자-

대학주보사

특별인터뷰

'봉사하는 총장상 창출할 터'

우리학교 고황재단은 공영일 총장 후임으로 조정원 교수(현 부총장)를 차기 총장으로 지명했다.

조정원 부총장은 오는 11일, 12일 전체교수회의의 신임투표를 거쳐 차기총장으로 확정된다. 조정원 부총장은 첫 모교출신(경제학과 졸업) 총장 지명자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사는 조정원부총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조정원 교수
〈현 서울부총장〉

"우선 개인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며 학내구성원은 물론 동문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부총장은 이번 재단지명 총장으로 소감을 간략히 답변하며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고 선출된다면 그간 학교행정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피력한다.

다음은 조부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러대학에서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빚은바 있다. 우리학교도 경민협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벌인바 있고, 다른 대학과는 달리 큰 대립없이 원만한 의견교환으로 매듭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대학의 최고경영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몇몇대학이 선출문제로 학내문제화 되었고, 교수들의 파벌과 이해 대립으로 혼란에 직면했던 모습을 상기할때 우리학교는 성숙된 자세로 학내단체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총장의 선출요건은 제도의 개정이 아니라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한 전체구성원이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최고경영자인 총장의 역할은 여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시기 우리학교 위상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총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로서 구성원들에게 군림하는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역할이 강조되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총장 개인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해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야 되고 구성원을 대신해 학교행정을 담당하는 이상, 총장은 전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소수집단의 이기주의는 단호히 배척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학교는 99년도에 개교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사회적으로 대외협력과 발전기금을 통해 학교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우리학교는 올해 대학평가등 많은 부분에서 최우수 평가등을 받으며 일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대학의 경쟁체제에서 우리학교의 미래상을 제시한다면.

=각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단지 좋은 평가만을 받았다고 좋아할 수는 없겠지요. 내년 역시 올해 추진했던 교육개혁 성과들을 가지고 '교육개혁실천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대비를 해야합니다. 우리가 진행해온 이러한 성과들은 평가를 위한 준비가 완성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할 요건들을 갖춘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구성원들의 화합과 노력에 있었던 것으로 이젠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더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야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학부제가 실시됩니다. 학사 행정체제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데.

=날로 치열해지는 대학경쟁시대에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학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학교가 시행하는 학부제는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조율하고 인내하면서 얻어진 것인 만큼 이젠 어떤 운영으로 경희의 모델을 창조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의 발전은 학부제 운영뿐 아니라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수들은 연구활동에 전념, 직원들은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는 등 각분야에서 제각기 열심히 해 줄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부총장은 끝으로 사회에 많은 훌륭한 동문들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과 동문회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하고 개교 50주년인 99년에는 양캠퍼스 공히 학내공사가 없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승오 편집장〉

약력

〈학력〉
66년 서울고 졸
70년 경희대 경제학과 졸
74년 미국 Fairleigh Dickinson Univ. 국제정치학과 석사
84년 Belgium Katholicke Universiteit Lueven 국제정치학과 박사
93년 대만 문화대학 명예법학박사 전공
국제정치, 통합이론
〈학회〉
한국 국제정치학회 정회원
한국 정치학회 이사
〈현직〉
서울캠퍼스 부총장, 통합기획위원회 위원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정외과 교수, 동북아 현우회 회장

교시탑

튼튼한 집짓기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치밀한 설계도일 것이다. 설계도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자재로 공을 들여 지어도 그 집은 얼마안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어떤 일이든 계획이 중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공적인 일인 경우 그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학교에서 실시되는 여러 제도들은 "설계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학교는 내년부터 학부제를 비롯하여 전과제도 실시, 최소전공학점인정제(전공졸업학점을 36학점으로 낮추는 제도)도입에 따른 복수전공기회의 확대 등 학생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과 단위 학습방법은 일제히 사라지게 되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중 학부제는 이미 많은 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학가의 공통된 하나의 대세로 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학부제 실시의 필요성으로는 학부생들이 한 전공과목에만 매몰되는 것을 탈피하여 보다 넓은 교양과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동일하게 복수전공제도의 폭도 넓히게 되는데 그 제도적 장치로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제책으로 전과를 전면허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학교에선 학부제와 복수전공의 실시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인 전인교육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인문과학분야가 등한시 되고 지원자들이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등을 비롯한 소위 '인기학과'로만 집중되는 것이다. 우리학교도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하게 되면 타학교에서의 경우와 같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학부제와 복수전공의 실시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문과학분야를 교양필수로 지정을 해 대학의 지성인이라면 필히 갖추어야 할 교양수준을 습득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교수들이 보다 더 자기 학문에 매진하여 그 학문에 대한 열의와 노력으로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최현일 기자〉

경희사진공모전 결과 발표

우수작-신범준군 '제2 르네상스란? II'

우수작-심재현군 '야경'

우수작-신범준군 '제2 르네상스란? II'

우리신문에서 주최한 '제2회 경희사진 공모전'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쉽게도 당선작은 없으며 심재현(우주 4)군이 '야경'으로, 신범준(체육 3)군이 '제2르네상스란? II'이란 작품으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가작은 강윤기(신방 4)군의 '밀담'과 강승일(무역 3)군이 '비 개인 오후', 박기현(기계 2)군의 '침묵의 대화'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패, 가작은 1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시상식 날짜와 장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 동안 참여해 주신 독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찾습니다' 발표 3면

이번호가 종간호입니다

1999년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년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년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년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년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년 경희 창학 반세기,
경희의 이름으로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기필코 세계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경희인 모두의 단결된 의지와 경희의 저력.
21세기 세계화·정보화·미래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경희대학교
경희인 모두의 몫입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으로 마련되는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대강당 완공
개교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조성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의 후원운동을 전개합니다.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장학/각종 고시육성 후원기금

경희발전기금참여안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귀한 발전기금은 경희대학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를 여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 **대 상** :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 **기부형태**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
■ **일시 및 분할 납부** :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예 :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서울은행	17301-2719-209	외환은행	131-13-10336-6
농 협	031-01-396711	평화은행	044-01-001-286
우 체 국	012336-0025556		

■ **발전기금 납부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약정서에 기재하신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 현금을 출연하시고자 할 때에는 희망하시는 금액을 일시에 출연하거나, 출연금액을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할인 경우 1회분 불입시 도장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우편환 또는 전신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가능
·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출원은 개교50주년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유산상속이나 기타 소유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헌납하실 수 있으며 모든 법적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KHU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 961-0931/2 Fax : 961-0906